

우리은행, 12년간 헌혈증 5000여장 기부

3개월간 '사랑의 헌혈 캠페인' 펼쳐

우리은행은 3일 서울시 회현동 본점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갖고 손태승 은행장을 비롯한 본부부서 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영업점 직원들은 가까운 헌혈의 집을 자발적으로 방문해 헌혈을 실시하고 헌혈증을 기부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우리은행과 대한적십자사가 2006년 헌혈 약정 체결 이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여름 휴가철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우리은행은 지난 12년간 헌혈증 약 5000여장을 기부했다.

손장은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생명나눔 활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과 박필준 노조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헌혈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직접적인 헌혈 참여는 물론 임직원이 기

부한 헌혈증을 모아 백혈병, 소아암과 같은 희귀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소외계층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새단장 3일 현대백화점은 이재실 무역센터점장(왼쪽에서 세번째), 손태규 WTC서울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점 정문 앞에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새단장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대형 떡 컷팅식을 진행하고, 백화점 방문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는 '하와이안 레이(꽃 목걸이)'와 떡을 증정했다. /현대백화점

메가박스

'100호점' 상암점, 강북 랜드마크로

메가박스 100호점 상암월드컵경기장점(이하상암점)이 오는 4일 공식 오픈한다. 메가박스는 "이번 오픈을 통해 그동안 코엑스점에 집중된 문화 행사들을 서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암점을 강북의 문화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메가박스 100호점 개관 기념식을 맞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중앙그룹 홍정도 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메가박스 김진선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를 비롯해 서울 시설공단 이지운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내외부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메가박스

상암점은 초대형 스크린과 진정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특별관인 MX관을 포함한 9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음악과 책,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고객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박스는 오픈 기념으로 무료시사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넷마블문화재단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예선 종료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8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전반기 지역 예선대회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4개 시도에서 펼쳐진 2018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 예선은 장애학생 개인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 부모동반, 사제동반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하반

기 지역예선은 오는 7월 1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예선대회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한 로봇코딩을 포함한 총 16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마구마구(PC) 및 모두의마블(모바일), 팬타스툼(모바일) 등 총 11개 e스포츠 종목으로 실시됐다. 본선 대회는 오는 9월 4~5일 양일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공동개최 해 온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게임이라는 매개체로



2018전국장애학생e페스티벌 전반기 지역예선 현장 모습. /넷마블문화재단

장애학생의 자존감 및 성취감을 고양하고 게임의 우수한 기능성을 활용해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7월 4일 (음 5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되는 것. 60년생 외출을 삼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72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 84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아랫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자.

소 4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게 되는 날. 61년생 길 떠날 때는 우산과 비옷을 챙겨야 한다. 73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노력. 85년생 주변인과 의견 차이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외의 사람이 도와준다.

호랑이 50년생 청색, 손수건이 오늘 행운의 상징. 62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 74년생 능력 이상의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는 날이다. 86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 세상이지.

토끼 51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그냥 주는 것으로 생각. 63년생 슬픈 일은 이제 잊을 때가 되었다. 75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행운의 날. 87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말 52년생 먼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6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는 더 어려운 곤란한 하루. 76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88년생 심신이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다.

뱀 53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거래가 순조롭다. 65년생 어느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필요. 77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양보도 미덕이다. 89년생 마음의 조급함이 화를 부른다.

말 54년생 죽은 나무에 물주는 이제 그만하자. 66년생 횡재수가 있거나 자녀에게 기쁜 일이 있겠다. 78년생 사기 운이 있으니 도장 찍는 일에 주의. 90년생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할 일을 먼저 정하자.

양 55년생 눈에서 멀어진다 하고 마음도 멀어지는 건 아니다. 67년생 소소한 적선 이 더 큰 보답으로 주어진다. 79년생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91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원숭이 56년생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6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 없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 80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92년생 작은 먼지가 눈을 아프게 하니 주의를 기울여라 하자 마라.

닭 5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69년생 내에겐 자랑이지만 남에게 꼴볼견일 수 있다는 걸 명심. 81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을 절로 굴러온다. 93년생 정확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개 58년생 오늘의 기쁨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7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적선을 하는 것도 한 방법. 82년생 마음을 편히 먹어야 일이 잘 풀린다. 94년생 무더위까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돼지 59년생 흐르는 강물처럼 험기로운 하루. 71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비야 흐르 행동할 때가 왔다. 83년생 먹은 복이 있는 날. 95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6	1	5			
			8	7	5			
	7							6
	1		9	5	7		2	
6			2		4			8
		9				1		
	3	1				2	5	
2	4	6				9	3	7

		4		3				5
		7	1					2
		5	9			1	3	
					8		5	9
1			5	6				7
					9		1	3
		1	2			7	4	
		3	7				6	
		2		4				1

스도쿠 정답

4	8	6	1	5	9	7	2	3
7	5	2	6	9	4	1	8	3
9	8	1	4	7	3	6	5	2
8	1	7	4	2	5	6	9	3
5	2	9	1	3	6	8	7	4
6	3	4	5	8	7	9	1	2
2	9	3	8	6	1	4	5	7
3	6	5	2	9	4	8	7	1
1	4	2	3	7	8	5	6	9

1	6	4	5	7	9	2	8	3
2	9	5	1	8	4	7	6	3
8	7	4	2	6	3	1	5	9
5	1	9	6	3	7	8	2	4
4	8	7	2	9	5	6	1	3
6	5	2	8	1	4	9	7	3
7	4	1	3	7	6	5	9	8
9	2	8	7	5	1	4	6	3
3	4	6	9	8	7	3	1	5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운세는 인생의 물길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즐긴다는 건 순수하게 그 자체를 생활처럼 받아들여 행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무심의 상태라고 해도 좋을 테니 무엇을 해도 풀 흐르듯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역학에 인용하면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도 운세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적절할 것 같다. 운세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 가는지, 운세의 기운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능력 좋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실력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줄 안다. 물론 실력이 있으면 잘 나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력이 전부 아니다. 세상에는 실력이 출중해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별 볼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운세의 작용이 실력을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공부를 특출하게 잘 하는 문창성 사주이고 관운이 살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단박에 합격했다. 기획실로 발탁이 돼서 기세등등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반전이 벌어진다. 생각지도 않던 마케팅 부서로 발령이 나더니 지방근무까지 하게 된다. 다시 본사로 들어오긴 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재무팀에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다. 상담을 청한 남자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 했다. 그가 알았던 건 자기의 실력이고 몰랐던 건 자기의 운세였다. 기획실에서 밀려난 때는 운세가 바닥으로 급하게 흘러내리던 시기였다. 잘나갈 때의 시기는 운세가 그를 도왔다. 뜻밖의 변화가 몰아친 시기에는 어느 정도 명맥이 이어오던 관운이 심하게 흔들렸다. 경쟁자의 기운이 그를 내리누르기까지 했다. 그런 까닭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 비겁으로 흘러가는 그의 운세는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의 힘이 모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더 기다려야 한다. 운세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몸을 낮추고 수양을 해야 한다. 공부하는 시기로 삼으면 된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막히고 걸리고 넘어진다. 운세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 어떤 운세의 흐름이 닥쳐오면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양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운세를 거스려 하면 역작용이 생긴다. 실력은 인생의 기본이고 운세는 인생의 물길이다. 실력을 바탕으로 운세의 물길에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한다. 주어진 운세를 무시한 듯 받아들여야 아프고 고통이 한결 줄어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